

## OECD 국가 간 법인세 단순 비교의 문제점

OECD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국가 간 법인세 부담수준을 단순 비교하는 경우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국가별로 직면한 경제적 여건이나 정치사회적 상황에 따라 법인세 부담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별 차이를 무시하고 단순히 OECD 통계자료의 수치로 국가 간 법인세 부담수준을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한 국가의 법인세 부담수준은 해당 국가의 정상수준 대비 현재의 부담수준을 평가하여 높고 낮음을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 간 비교에서도 이를 고려하여 정상치 대비 실제치 비율 지수(=(실제치/정상치)×100)를 사용하여 비교할 필요가 있다. 정상치 대비 실제치 비율 지수를 기준으로 국제비교를 할 경우 2012년 한국의 명목 최고법인세율은 OECD 33개국 가운데 11위, 법인세 부담률은 OECD 32개국 가운데 2위를 기록하여 OECD 통계자료 단순 비교시보다 훨씬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요컨대 한국의 실질적 법인세 부담수준은 OECD 국가 간 비교에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에는 법인세 부담수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 OECD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국가 간 법인세 부담 수준을 단순 비교하는 경우 주의할 필요가 있음.
  - OECD 통계자료를 통해 국가별 명목 최고법인세율 및 법인세 부담률(=법인세수/GDP) 수준을 파악할 수 있지만 이러한 수치로 각 국가별 법인세 부담수준을 해석하는 경우 주의할 필요가 있음.
  - 국가별로 직면한 경제적 여건이나 정치사회적 상황에 따라 법인세 부담수준도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국가적 차이를 무시하고 단순히 OECD 통계자료의 수치로 국가별 법인세 부담수준을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한 국가의 법인세 부담수준은 해당 국가의 정상수준과 현재의 수준을 비교하여 높고 낮음을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 간 비교에서도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법인세 부담의 정상수준이란 한 국가의 경제·사회·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국가에서 정상적으로 판단되는 법인세의 부담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음.
  - 한 나라의 실제 법인세 부담수준이 정상수준보다 높으면 법인세 부담수준이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반대로 정상수준보다 낮으면 법인세 부담수준이 낮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 간 법인세 부담수준의 비교에서도 국가별 정상치 대비 실제치의 수준(=(실제치/정상치)×100)을 근거로 국가별 법인세 부담수준을 비교하는 것이 더욱 타당함.

□ 정상치 대비 실제치 비율지수를 기준으로 국제비교를 할 경우 2012년 한국의 명목 최고법인세율은 OECD 33개국 가운데 11위, 법인세 부담률은 OECD 32개국 가운데 2위를 기록하는 등 높은 수준을 나타냄.

- 법인세 부담의 정상수준은 OECD 국가를 대상으로 명목 최고법인세율과 법인세 부담률에 대해 회귀분석을 수행한 후 이로부터 정상수준을 추정할 수 있음.

\* 회귀분석을 위해 독립변수로는 국가규모, 개방도, 소득세율(or 소득세 부담률), 국가채무 수준, 고령화 수준, 실업률, 재정지출 규모, 장기 이자율, 주변국 법인세율 가중평균(or 주변국 법인세 부담률 가중 평균), 부패수준, 관료제 비용, 집권당의 성향 등을 고려하였으며, 회귀분석 결과를 사용하여 법인세 부담의 정상수준을 추정하였음.

- 2012년 기준 한국의 명목 최고법인세율을 정상치 대비 실제치 비율 지수(=(실제치/정상치)×100)로 환산하면 105.7로 분석대상 OECD 33개국 가운데 11위를 기록하여 상위권에 위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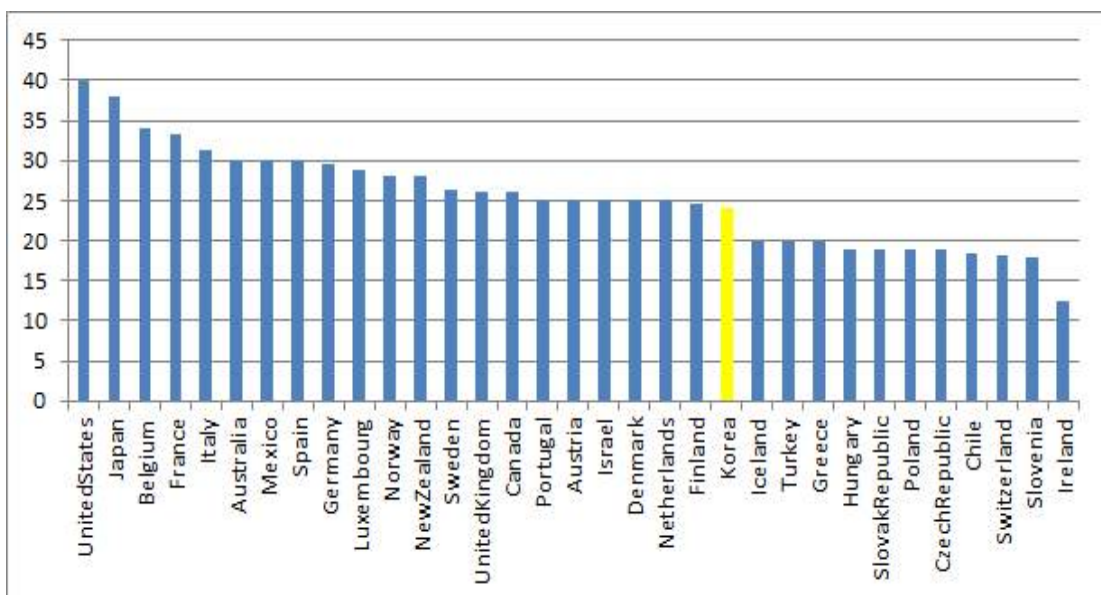
\* 하지만 단순히 명목 최고법인세율(지방세 포함)로만 비교하면 한국은 24.2%를 기록하여 분석대상 OECD 33개국 가운데 22위를 기록하여 법인세율이 중간 이하로 평가되는 오류 발생

- 2012년 기준 한국의 법인세 부담률도 정상치 대비 실제치 비율 지수로 환산하면 131.5로 분석대상 OECD 32개국 가운데 2위를 기록하며 최상위권에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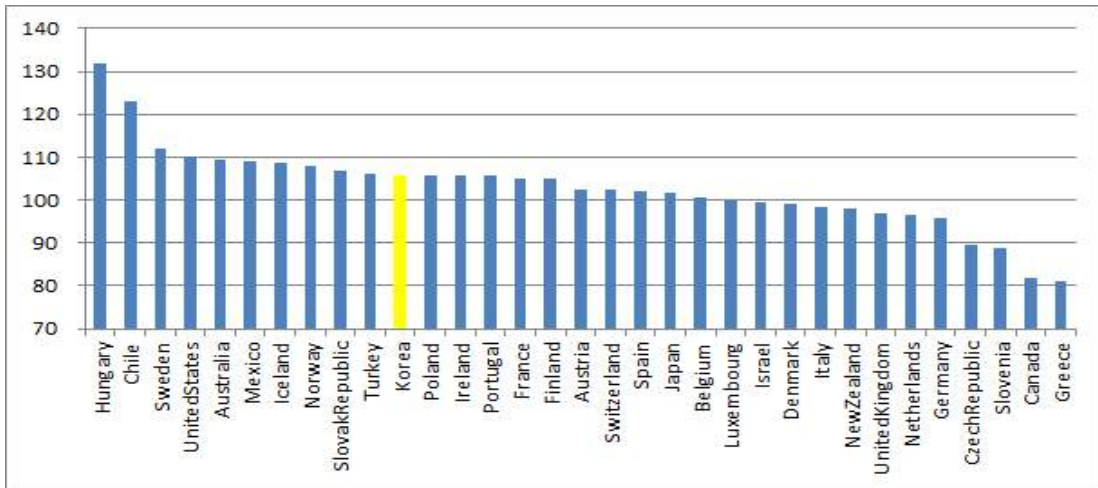
\* 단순히 법인세 부담률로만 비교하면 한국은 3.7%를 기록하여 분석대상 OECD 32개국 가운데 6위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인 수준(2위)보다 낮은 수준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음.

### <명목 최고법인세율 국제비교>

[단순 명목 최고법인세율(%) 비교 시] - 33개국 중 22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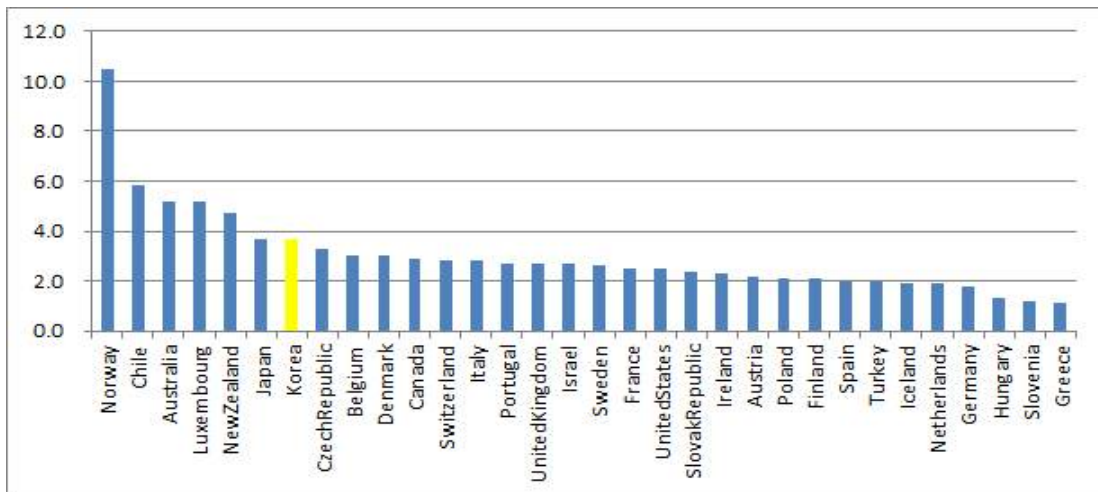


[정상치 대비 실제치 비율 지수(=(실제치/정상치)×100) 비교 시] - 33개국 중 1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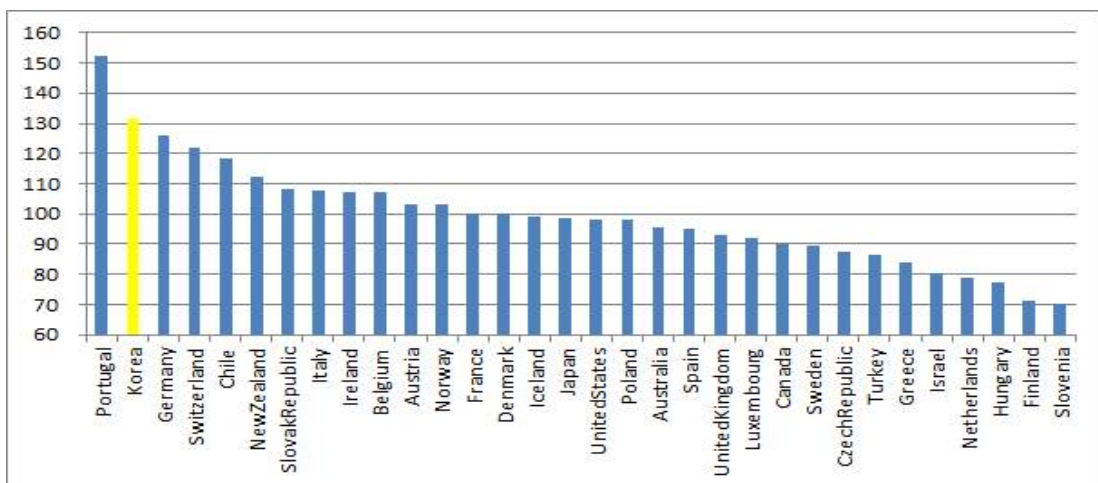


<법인세 부담률 국제비교>

[단순 법인세 부담률(=법인세수/GDP, %) 비교 시] - 32개국 중 6위



[정상치 대비 실제치 비율 지수(=(실제치/정상치)×100) 비교 시] - 32개국 중 2위



- 요컨대 한국의 실질적 법인세 부담수준은 국제비교에서도 높은 수준이며 따라서 향후에는 이를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음.
  - 법인세 부담의 정상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명목 최고법인세율과 법인세 부담률을 사용하여 국제비교를 할 경우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수준이 과소평가되는 문제점이 발생
  - 정상치 대비 실제치 비율 지수를 사용한 한국의 법인세 부담수준은 국제적으로도 상위권에 위치할 뿐만 아니라, 실제치가 정상치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향후에는 현재의 법인세 부담수준을 낮출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현재의 법인세 부담수준을 정상수준까지는 완화하여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경쟁적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명목 최고법인세율 인하, 기업소득 환류세제 폐지 등의 정책적 대안을 함께 모색할 필요
    - \* 2014년 세법개정으로 도입된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의 투자나 임금증가·배당 유인 없이 법인세 부담만 가중시켜 오히려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내수 부진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폐지할 필요